

# 광주 출신 DJ 김효종 EDM 강국 네덜란드서 공연

(Electronic Dance Music)

올해로 22회를 맞은 ADE(Amsterdam Dance Event)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아시아계 및 아시아 디제이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모여 디제이 문화를 교류하는 행사다. 축제 기간 약 4-50만 명이 다녀갈 만큼 인지도가 높으며 야외 페스티벌, 세미나, 클럽 파티 및 콘퍼런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지역 출신 김효종(활동명 에드가사운드) DJ가 최근 ADE 일환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Exchange Asia'에 참여했다. 그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디제이 공연은 물론 해외 아티스트와 교류하며 지역 전자음악 발전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21년 차 베테랑 DJ인 김효종 씨는 광주예술의거리에서 디제이 아카데미 '비트윈 DJ랩'을 운영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현직 DJ로서 광주·전남 최초로 앨범 '썸머블리스'를 발매해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김 씨는 문화기획 분야로 활동 분야를 넓혀 '추억의 7080 총장축제'에서 DJ 페스티벌을 선보이거나 전국 DJ를 인터뷰하는 '디제이 뮤직업 챌린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는 "ADE는 세계 DJ 순위인 'DJ MAG'을 발표할 정도로 전자음악계 추세를 알려주는 척도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DJ로서 탐타어 페스티벌 진행 방식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김 씨는 ADE Exchange Asia 섹션에 참가해 자신만의 전자음악 레퍼토리를 펼친 것은 물론, 노트르담 선전지를 답사하며 글로벌 DJ 아티스트들과 디제이 문화를 교류했다.

"한 번은 암스테르담 외곽에 위치한 'Radion'이라는 클럽에 찾아가려 계획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운영자는 '테크노 요가'를 알게 됐어요. 정적인 운동으로 인식되던 요가와 격렬한 테크노를 접목했다는 점은 국내 전자음악계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그는 "국내 문화예술계에서도 '웰니스(웰빙+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음악과 명상을 결합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러닝, 환경보호, 명상 등 문화계에서 부상하는 트렌드를 읽고



광주에서 21년 차 활동한 베테랑 DJ 김효종 씨가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Exchange Asia'에 참여했다. 김 씨가 디제이 공연을 펼치는 모습. <김효종 씨 제공>

## 제22회 암스테르담 ADE 축제 참여 해외 아티스트들과 교류...방향 모색 지역축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할 것

특색 있는 지역 행사로 확장시키는 시도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씨는 벨기에 등지서 열리는 '투모로우랜드 페스티벌'을 예로 들었다. 이 축제는 2005년 시작 당시만 해도 가설 천막으로 무대를 만들어 진행하는 9000여명 규모의 작은 동네 축제에 불과했다. 그



ADE 행사 라인업

러나 올해 총 4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입소문을 탔는데, 축제 개최지인 벨기에 봄의 인구수(1만8000여 명) 대비 방문객이 20배에 달할 정도로 성황리에 치러졌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론칭 여부가 화두에 올랐던 이 축제에 대해 그는 "매해 달라지는 메인 스테이지의 컨셉과 슬로건 등은 행사를 매력적으로 만든 요인들"이라며 "파티 플레인·트레인(비행기, 기차 모형을 한 행사장) 등 독특한 기획과 연계해 유입인원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어, 참가자를 '페스티벌 세계관'에 매료시키는 점은 배울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는 푸드트럭, 지역 특산물, 가수 공연 및 EDM 디제이 등 어느 지역축제 현장을 가보더라도 비슷한 콘텐츠와 동일한 풍경이 가득하다"면서 "디제이 분야에 국한된 것만 아니라 지역 축제 전반이 향후 트렌드에 민감한 기획자를 주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에서도 최근 성료한 행사들을 언급하며 성공 가능성을 가늠했다. 지역 댄서들이 기획해 국내에서도 지명도 있는 행사로 자리 잡은 '라인업'의 경우 행사 기간 10~20대의 열기로 충창로가 가득 찼다는 것이다. 또한 충창로 라온페스티벌에서 성료한 '원더'의 경우 호남에서 열린 최초의 '야외 언더그라운드 디제이 페스티벌'이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플로피 페스티벌' 또한 아시아 젊은 예술가들에게 광주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소리치다 in 밴드'의 공연 장면. <빛고을국악전수관 제공>

## 판소리 하이리트 '눈대목' 세 편 만끽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 in 밴드, 12일 광주빛고을국악전수관

판소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장면을 일컫는 '눈대목'은 일부 대목만 연행함에도 그 자체로 '완결성 있는 작품'으로 간주된다. 30분~1시간 동안 이어지는 소리꾼의 재담과 열창은 안창과 달리 관객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감상하기에 좋다.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 in 밴드가 '눈대목'을 오는 12일 오후 7시 광주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펼친다.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수궁가', '심청가', '춘향가' 속 주요 대목으로 우리 신명을 돋운다.

막을 올리는 작품은 '수궁가' 중 '토끼 수난시대'로 수궁에 잡혀간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용궁의 신하들을 속이고 탈출하는 내용이다.

이어 '춘향가' 중 '사랑가'는 진양조로 되어 있는 느린 사랑가로 시작해 중중모리로 짜여

진 자신사랑가와 정자노래를 포함한다. 춘향과 몽룡이 부르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등 노랫말로 관객에게 익숙하다.

끝으로 '심청가' 중 '행실'의 행실을 해석적으로 묘사하는 '행덕'이 관객들을 만난다.

한편 소리치다 in 밴드는 전통예술 판소리를 기반으로 현대적 선율, 리듬을 가미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프로젝트 팀이다. 이들은 기타, 베이스, 드럼을 바탕으로 기존 판소리를 새롭게 작·편곡해 왔다.

빛고을국악전수관 류효진 학예연구사는 "이번 레퍼토리의 바탕은 전통예술인 '판소리'에 두지만 판, 재즈 등 선율을 더해 신선하게 다가오는 작품들이 많다"며 "판소리 주요 눈대목을 감상하며 해학과 풍자, 우리 소리의 신명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석 무료, 내이버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2025 토요일상설' 무대 오를 예술가 찾는다

국립남도국악원, 14일까지 접수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2025 토요일상설'에 출연할 예술가 개인 및 단체를 10일부터 14일까지 공모한다. 일반공모 6팀, 차세대 명인전 공모 총 8명을 선발하며 이메일 접수.

공모는 일반공모와 미래 명인을 만나는 차세대 명인전 공모로 나눠 진행한다. 선정된 단체 및 개인은 내년도 7~12월 중 1회 공연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공연장 공사로 미운영) 먼저 일반공모는 국악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예술단체 및 개인이 지원할 수 있다. 70분 이상 실연 가능한 전통음악, 전통 성악, 창작 음악, 극작품 및 연희극 등이 공모 대상이다.

이어 차세대 명인전 공모는 19세 이상·만 40세 이하 국악 전공자를 대상으로 1일 4명의 출연자가 각각 20분씩 공연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공연료로 일반공모 선정자에게 500~1500만원(판소리 독창 및 기악독주는 3~500만원), 차세대 명인전 공모 선정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토요일상설은 국악원이 2004년부터 시작한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올해에도 다양한 국악 예인들이 무대에 올랐다"며 "434석 규모를 갖춘 공연장인 진악당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칠 개인 및 단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박래균 "시란 시시한 세상을 시시하지 않게 하는 힘이다" 펴내

문학을 하는 이들이라면 저마다 생각하는 문학의 정의가 있다. "삶의 희망", "세상을 살게 하는 힘", "세상과 소통하는 창" 등등 다채롭다.

박래균 시인은 시를 이렇게 정의한다. "시란 시시한 세상을 시시하지 않게 하는 힘이다"라고.

박 시인이 시를 정의한 듯한 문구를 제목으로 내건 시집을 펴냈다. '시란 시시한 세상을 시시하지 않게 하는 힘이다' (한림)는 짧으면서도 위트가 있는 작품을 담고 있다. 대부분 작품은 시와 연관돼 있어 문학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카페에서 읽기 좋은 짧은 시'라는 부제가 이번 작품집의 방향을 말해준다. 모두 50여 편의 작품이 담긴 시집은 작품과 함께 간단한 이미지가 수록돼 있어 읽는 맛과 보는 맛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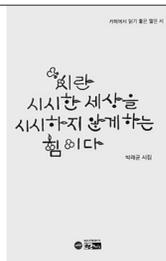
"시는 웃이오/ 노래는 땀이오/ 그림은 집이다// 나의 의식주다"라는 '의식주'를 풀어낸 짧은 작품은 시인이 바라보는 시에 대한 의미를 간결하게 압축했다. 시를 '의식주'라고 말할 문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쭉, 추워지면/ 얼어붙은 수도꼭지를 연탄불에

녹여/ 따뜻한 물이 나오는 쪽으로/ 수도꼭지를 틀어 놓는 사람이다"

위 시 '시인이란' 작품은 시인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시인은 현학 적이며 고뇌하는 이가 아닌 추운 계절이 오면 따스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